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0월 25일 목요일 (음 9월 17일) 제215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깊어가는 가을, 대학 교정 나무들도 가을빛으로 물들다



전국적으로 완연한 날씨를 보인 24일 전주 덕진구 전북대학교 교정의 나무들이 형형색색의 빛깔로 물들어가고 있다.

## 제38회 전국 장애인체전 오늘 익산서 개막... 29일까지 5일간

# 장애인 · 비장애인의 '벽' 을 넘어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25일 익산에서 '새 세상으로 어우러짐'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체전은 역대 체전 최초로 재미동포선수단 2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체전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개회식의 연출포커스는 더불어 어울려 하나 되는 전북 '화이부동'의 메시지를 표출하고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합동 퍼포먼스로 '조화와 소통의 장'을 구현하고 개회식 하이라이트로 만인평등의 가치를 염원하는 성화점화 연출이다.  
행사장은 백제 왕궁터와 미륵사지석

조화 · 소통의 장 구현  
개회식은 식전 등 3가지로  
탑을 모티브로 한 대형 무대를 조성하고 주요내빈, 선수단, 관람석 좌석을 그라운드로 배치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석을 2층 중앙단상에 마련함으로써 '내국인 화합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회식은 식전행사 '취추풍 전복', 공식행사 '하나로 스타', 식후행사 '우리 함께 내일로'라는 3가지 행사로 꾸며진다.

식전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호흡하는 환영공연, 분위기 조성공연, 주제공연으로 구성으로 30분간 펼쳐질 것이고 공식행사는 귀빈입장을 시작으로 개식통고, 선수단 입장, 국민의례, 개회선언, 환영사, 대회기게양, VIP차사, 선서, 성화점화로 전개되며 식후행사는 홀로그램 PT쇼, 카운트다운쇼, 멀티미디어쇼, 인기가수 축하공연으로 개회식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번 장애인체전은 25~29일까지 5일간 익산종합운동장 등 12개 시군 33개 경기장에서 26개 종목에 8600여명의 임원 및 선수단이 참가한다.  
운동유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장애인체육대회는 배려와 참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풍요로운 전북의 가을 정취에 기뻐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담은 '취추풍(醉秋風) 전복' 연출함으로써 국민의 대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장애인체전 개회식에 시민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익산에서 시내순환 셔틀버스를 첫차 오후 2시부터 막차 오후 9시 20분까지, 4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또한 전국장애인체전 개회식은 입장권 없이 오후 3시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김진성 기자 · 익산=우병희 기자

## '세계가 묻고 전주가 답하다' 세계슬로포럼 어워드 개막

### 오늘까지 이틀간 개최

제2회 전주세계슬로포럼 & 슬로어워드가 24일 국립무형유산원, 한옥마을일원에서 해외 7개국 대표단 14명과 관계 공무원 등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세계가 묻고 전주가 답하다'라는 슬로건과 슬로니스와 삶의 질을 주제로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포럼의 개막식에는 슬로 운동의 해외 전문가와 국내외 슬로시티 지자체, 주민협의회,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의 대회선언으로 시작했다. <관련기사 4면>

생태 · 교육 전문가 초청  
국내 전문가 참여 토론회  
오늘은 사례발표 진행  
김승수 시장 "공동체 삶 계승 전주 널리 알릴 것"

이 자리에서, 이번 대회의 발제를 맡은 프란츠 알츠 박사는 태양에너지 혁명과 녹색 경제에 대해 울리크 구스 이버슨 교장은 슬로정신과 관련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영걸 카이스트 정보미디어 대학원 교수, 가우디 요하네손 국제슬로시티 아이슬란드 듀피보그르 시장, 이효중 전북대학교 화학과 교수, 핀란드 슬로라이프의 저자인 미켈 램블린 교수 그리고 한국의 대안학교인 꿈틀리 인생학교의 정승관 교장이 참여해 슬로시티에 관한 토론

을 했다.  
포럼 이틀째인 25일에는 오르비에토의 주세페 저머니 이탈리아 슬로시티 시장, 피에르 보운드란 프랑스 슬로시티 미항드 시장, 함정희 함씨네토종콩 식품 대표 그리고 노박래 서천군수에 대한 슬로어워드 시상식과 사례발표가 진행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전주 세계슬로포럼에서는 올해 처음 도입된 '한국슬로시티 주민활동 경진대회'에서 국내 6개 슬로시티 회원 도시를 대상으로 주민활동 사례 발표와 현장 평가를 거쳐 주민 참여율, 지역자원 활용도와 슬로시티 정신과의 부합도 등을 평가 시상한다.  
이밖에, 전주한옥마을에서는 아마추어 가야금 연주자들의 공연, 25일 개막하는 전주비빔밥 축제와 연계한 달팽이 스탬프 투어, 씨앗엽서 쓰기 체험과 한국슬로시티 홍보관 등 행사와 볼거리들이 준비되어 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슬로시티와 슬로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슬로시티의 주민으로서 '느림의 가치'를 생활에서 어떻게 발견 할 것인지를 찾아, 전주시가 시민들이 행복한 슬로시티로 계속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슬로시티 가치 실현과 사람 · 생태 · 문화라는 시의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해 슬로시티를 상징하는 달팽이처럼 느리지만 당당한 걸음을 걸어왔다"며, "이번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를 통해 아름다운 전통의 가치와 조화로운 공동체의 삶을 계승해온 전주의 모습을 널리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 새천년 향한 첫걸음... 도, 전북대도약 정책협의회 출범

전북도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북대도약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새로운 천년, 정책구상을 위한 힘찬 첫걸음을 걸었다. <관련기사 2면>  
전북대도약 정책협의회는 24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도의회, 학계, 연구기관, 직능·사회단체 등 각 계각층에서 학식과 경험, 전문성과 활동력이 있는 위촉직 위원 25명과

전북도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전북대도약 정책협의회'는 전북도가 민선6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7기 정책진화와 혁신성장을 통해 도전과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민과 함께 전북대도약의 시대를 열기 위한 협의기구이다. /김진성 기자

모두가 탐내던 바로 그 자리-  
**누구나 살고 싶은 오투그란데!**  
모현 오투그란데 | 프리미어 |

모현오투그란데.com

**모현 오투그란데 PREMIUM 6**

<b>First 멀티교통망</b> 23번·27번국도,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KTX익산역 등	<b>First 교육환경</b> 단지 인근 익산시립모현도서관, 초·중·고교가 밀집된
<b>First 생활인프라</b> 바로 앞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시네마(영화, 우체국, 경찰서 등	<b>First 주거환경</b> 단지 인근 배산택지공공원, 모현공원, 배산체육공원 등
<b>First 생활인프라</b> 전북최초 히든주거(her)엔비 및 호텔식 욕실 설계, 필터 교체 가능한 환기 시스템 전 침실 적용	<b>First 브랜드</b> 전북 내 가장실적 1위, 300년 역사의 든든한 건설기업

**1522-3382**

모델하우스 | 익산시 광동로 632(인화동 1가 134-3번지) | 84㎡ (253세대), 118㎡ (85세대)  
현 장 | 익산시 모현동 731번지 | 총 338세대

10월29일 특별공급 | 10월30일 1순위 청약